평생교육리더십연구 8권 1호, 2021.6. pp.23-44 ISSN 2383-5184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Leadership, Vol.8 No.1, 2021.6. www.kalel.or.kr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용준*

초 록

본 연구는 취업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을 두고, C시의 M대학과 C대학의 졸업예정 학생인 2학년과 3학년과 1학년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1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고, 2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종속

* 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mail: social-kim@masan.ac.kr)
투고일: 2021년 5월 17일, 수정일: 2021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0일

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보다 감소하였고,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상담시 사회적 지지체계를 충분히 개발해 주어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 프로그램 개발 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사회적지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및 장래의 교육적・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김병숙・박현주, 2007 ; 김봉환, 1997).

진로 결정에 있어 하나의 선택지인 대학으로의 진입은 보다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한 입문이자, 앞으로의 일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며,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준비하는 시기이다(Meyer & Winer, 1993).

대학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대학생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경우, 동기, 선・후배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를 원활히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게 인식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대학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과 진로 및 직업탐색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김현희, 2015, 재인용).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몇 개의 변인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거나(손은령・손진희, 2005),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개인의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Vondracek, Lerner, & Schulenberg, 1986).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이수영・이영민, 2009),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승철・문혜영, 2014), 이공계 대학생의 이공계 진로 진출 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대학의 구성적 환경 요인 분석(변수연, 2016) 등이 수행되었으며,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변인, 심리・정서적 변인, 환경적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의 영향관계 연구가 이루어져(박정희・김홍석, 2009; 장현지・홍아정, 2014 ; 노윤신, 2016 ; 이애용, 2020 ; 이현민, 2020 ; 이성희, 2020),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주위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으로 정의된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속의 타인들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고 스스로 지각함으로써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Davidson, L. etal, 2005).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기능적 측면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내용을 중심으로는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및 평가적지지로 분류된다(House, 198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란 취업준비 대학생에 대해 가족, 친구, 교수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포함하면서, 자신이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관계로 규정한다.

2.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즉,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김계현, 1997). 진로준비 행동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첫째, 정보수집활동이다. 자신에 관한 정보(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직업현황, 전망, 입직방법, 필수조건 등)를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셋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로준비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 행동이란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활동, 즉, 정보수집 활동, 도구준비 활동, 목표달성 활동 등을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스스로 준비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 실현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과 진로결정 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는 Bandura의사회인지이론에서 발전하였다(김아영, 2004, 재인용).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말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Lent, Brown, Brenner, Chopra,Daviss, Talleyrand & Surhakaran(2001)은 지각된 진로장벽이 직접적으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개인의 결과 기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대를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수리(2004)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접 간접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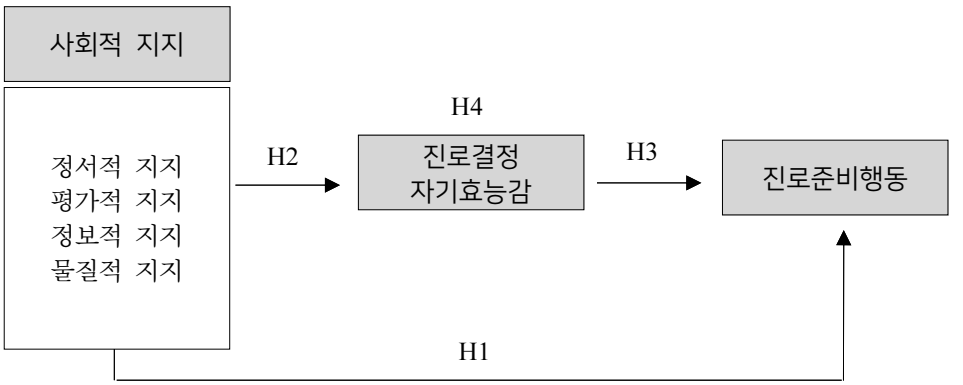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 및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계획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는 진로준비 행동으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로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정서적 지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평가적 지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정보적 지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물질적 지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정서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정보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취업준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취업준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H4-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H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가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H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보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H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물질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측정도구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는 Douglaset al(1996)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서예지(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 행동은 김봉환・김계현(1997)이 개발한 척도를 임은미・이명숙(2003), 권나영(2019), 박효식(2019), 김성앙(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Betz와 Taylor(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Self-EfficacyScale:CDMSES)를 토대로 이은경(2000)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5개 항목 25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C시의 M대학과 C대학의 졸업예정 학생인 2학년과 3학년과 1학년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응답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부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469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03월 29일~04월 02일까지 일주일간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175명(37.3%), 여성 294명(62.7%)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 200명(42.6%), 3학년 269명(57.4%)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보건 240명(51.2%), 인문/사회 90명(19.2%), 예체능 56명(11.9%), 공학 52명(11.1%), 간호 17명(3.6%), 자연 14명(3.0%) 순으로 나타났고, 졸업 후 희망진로는 병원 187명(39.9%), 전문직 136명(29.0%), 공무원 32명(6.8%), 사기업과 공기업이 각 26명(5.5%), 프리랜서(창업) 20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망 직업분야와 전공일치 여부는 일치함 415명(88.5%), 일치하지 않음 54명(11.5%)으로 나타났고,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통해 322명(68.7%), 취업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음 60명(12.8%), 독학으로 50명(10.7%), 학원수강을 통해 21명(4.5%), 대학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11명(2.3%), 스터디를 통해 5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175	37.3
	여성	294	62.7
학년	2학년	200	42.6
	3학년	269	57.4
전공계열	인문/사회	90	19.2
	예체능	56	11.9
	간호	17	3.6
	보건	240	51.2
	자연	14	3.0
	공학	52	11.1
졸업 후 희망진로	사기업	26	5.5
	공기업	26	5.5
	공무원	32	6.8
	전문직	136	29.0
	병원	187	39.9
	프리랜서(창업)	20	4.3
	기타	42	9.0

구분		빈도(N)	퍼센트(%)
현재 희망 직업분야와 전공일치 여부	일치함	415	88.5
	일치하지 않음	54	11.5
희망취업 분야 취업준비 방법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통해	322	68.7
	대학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11	2.3
	학원수강을 통해	21	4.5
	독학으로	50	10.7
	스터디를 통해	5	1.1
	취업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음	60	12.8
전체		469	100.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KMO 측도는 0.970으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2=9701.148 ($p<.001$)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s)을 토대로 4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71.946%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는 19.444%, '평가적 지지'는 17.619%, '물질적 지지'는 17.542%, '정보적 지지'는 17.340%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3. 그들과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736	.325	.251	.182
5.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706	.244	.218	.260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695	.233	.312	.230
2. 그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684	.281	.310	.225
4.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74	.260	.295	.294
6. 그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내준다.	.665	.279	.268	.331
7. 그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한다.	.635	.348	.224	.315

문항	성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12. 그들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244	.782	.260	.273
13. 그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204	.731	.292	.372
9. 그들은 내가 그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370	.715	.259	.226
10. 그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343	.699	.269	.273
11.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345	.690	.271	.249
8. 그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	.377	.642	.155	.269
23.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기꺼이 빌려 줄 것이다.	.279	.294	.774	.192
20.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208	.157	.739	.331
22. 그들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	.370	.259	.701	.182
25. 그들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이다.	.181	.216	.681	.254
21. 그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330	.251	.677	.330
24. 그들은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 줄 것이다.	.317	.237	.667	.295
19.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243	.210	.313	.759
16. 그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 주고 알게 해준다.	.304	.261	.186	.725
15.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207	.319	.261	.720
17. 그들은 내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350	.280	.250	.679
14. 그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276	.349	.323	.658
18. 그들은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247	.218	.332	.639
고유값	4.861	4.405	4.386	4.335
분산설명(%)	19.444	17.619	17.542	17.340
누적설명(%)	19.444	37.063	54.605	71.946
신뢰도	.926	.931	.916	.919

KMO=.970, Bartlett's test χ^2=9701.148 (df=300, p=0.000)

2)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KMO 측도는 0.955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2=5173.491 (p< .001)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윳값(Eigen values)을 토대로 1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60.118%로 나타났다. 즉, '진로준비 행동'은 60.118%로 나타났다. 1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진로준비행동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관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812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잃어보았다.	.811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801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792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788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783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82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780
8. 지난 몇 개원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77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769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764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757

문항	성분
	진로준비행동
15.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755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731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726
고유값	9.018
분산설명(%)	60.118
누적설명(%)	60.118
신뢰도	.952

KMO=.955, Bartlett's test χ^2=5173.491 (df=105, p=0.000)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KMO 측도는 0.975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2=10226.323 (p<.001)으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s)을 토대로 1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61.172%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61.172%로 나타났다. 1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6. 진로 목표에 대하여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876
21.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840
10.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835
9.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812
12.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811
11.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807
18. 나는 나의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796

문항	성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3.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784
14.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결정인지 또는 못한 결정인지에 대해 걱정(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783
15.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778
3.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776
19.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775
25. 처음 선택한 진로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774
24.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769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768
1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768
20. 취업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다.	.767
8.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수입과 연봉을 알아낼 수 있다.	.765
22.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764
2.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757
5.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756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할 수 있다.	.753
1.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752
2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도 있다.	.745
7. 향후 10년간의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고용경향을 알아낼 수 있다.	.725
고유값	15.293
분산설명(%)	61.172
누적설명(%)	61.172
신뢰도	.973

KMO=.975, Bartlett's test χ^2=10226.323 (df=300, p=0.000)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하위요인별 '정서적지지'(M=3.77), '평가적 지지'(M=3.74), '정보적 지지'(M=3.73), '물질적 지지'(M=3.72)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 행동은 평균 3.39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56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5>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M±SD	사회적 지지				진로 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3.77±.679	1					
평가적 지지	3.74±.734	.773***	1				
정보적 지지	3.73±.706	.738***	.742***	1			
물질적 지지	3.72±.701	.738***	.697***	.732***	1		
진로준비 행동	3.39±.740	.488***	.509***	.534***	.543***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56±.660	.535***	.520***	.556***	.540***	.690***	1

***p<.001

4. 가설의 검증

1) 가설1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5%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1.035, p<.001). 독립변수별로는 사회적

<표 6>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861	.168		5.124	.000
정서적 지지	.015	.074	.014	.200	.842
평가적 지지	.152	.066	.150	2.294*	.022
정보적 지지	.225	.068	.214	3.322**	.001
물질적 지지	.286	.065	.271	4.385***	.000
R^2=.345, Adj.R^2=.339, F=61.035***, p=.000					

*p<.05, **p<.01, ***p<.001

지지의 하위요인별 물질적 지지(β =.271, p<.001), 정보적 지지(β =.214, p<.01), 평가적 지지(β =.150, p<.05)가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2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6.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6.14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보적 지지(β =.235, p<.001), 물질적 지지(β =.194, p<.01), 정서적 지지(β =.138, p<.05)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1.202	.148		8.140	.000
정서적 지지	.134	.065	.138	2.059*	.040
평가적 지지	.094	.058	.104	1.614	.107
정보적 지지	.219	.059	.235	3.688***	.000
물질적 지지	.183	.057	.194	3.189**	.002
R^2=.363, Adj.R^2=.358, F=66.148***, p=.000					

*p<.05, **p<.01, ***p<.001

3) 가설3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24.693, p<.001). 독립변수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 =.690, p<.001)은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취업준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상수)	.634	.136		4.669	.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74	.038	.690	20.608***	.000
R^2=.476, Adj.R^2=.475, F=424.693***, p=.000					

***p<.001

4) 가설4의 검증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1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고(p<.001), 2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표 9>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검정단계	β	t	p	F-value	R^2	채택유무
정서적 지지	1단계	.535	13.672***	.000	186.936***	.286	부분매개
	2단계	.488	12.079***	.000	145.898***	.238	
	3단계(독립)	.167	4.279***	.000	229.373***	.496	
	3단계(매개)	.601	15.447***	.000			
평가적 지지	1단계	.520	13.162***	.000	173.248***	.271	부분매개
	2단계	.509	12.773***	.000	163.160***	.259	
	3단계(독립)	.205	5.394***	.000	239.674***	.507	
	3단계(매개)	.583	15.316***	.000			
정보적 지지	1단계	.556	14.445***	.000	208.661***	.309	부분매개
	2단계	.534	13.660***	.000	186.588***	.285	
	3단계(독립)	.218	5.589***	.000	241.709***	.509	
	3단계(매개)	.569	14.573***	.000			
물질적 지지	1단계	.540	13.874***	.000	192.482***	.292	부분매개
	2단계	.543	13.966***	.000	195.041***	.295	
	3단계(독립)	.240	6.273***	.000	249.459***	.517	
	3단계(매개)	.560	14.651***	.000			

***p<.001

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p<.001).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보다 감소하였고,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취업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질적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1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고, 2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보다 감소하였고,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도할 때 학부모, 또래, 취업지도 교수는 사회적지지 체계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상담시 사회적 지지체계를 충분히 개발해 주어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 프로그램 개발 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C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본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료수집 과정에 학생들의 주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준비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지도에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병숙・박현주(2007). 전문대학생의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18(1). 한국진로교육학회. 206-227.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한국상담심리학회. 311-333.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김승철・문혜영 (2014).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29(3). 한국경영교육학회. 1-17.

김아영(2004). 한국 교육심리학계의 동기 연구의 과제. 교육심리연구, 18(1). 한국교육심리학회. 5-21.

김현희(2015).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변수연(2016). 이공계 대학생의 이공계 진로진출 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대학의 구성적 환경요인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1). 한국교육학회. 375-399.

서예지(2016). 미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한국상담심리학회. 399-417.

이은경(2000).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수영・이영민 (2009).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 행동 분석. 공학교육연구. 12(3). 한국공학교육학회, 73-78.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ro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Davidson. L. M., Hodgson. K. K. & Rebus. P. J.(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lalysis. *Psychology in School*, 42(7), 691-706.

Douglas, D., Suurmeijer, T., Briancon, S., Moum, T., Krol, B., Bjelle, A.,Sandeman, R., & Ven den Heuvel, W.(1996). An international studyon measuring social support interactions and satisfaction. *Social Science Med*, 43(9), 1389-1397.

House, J.(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s, T., Talleyrand, R., & Surhakaran, V.(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Meyer, B. W., & Winer. J. L.(1993). The career decision scale and neurotic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171-180.

Vondracek, F. W., Lerner, R. M., & Schulenberg, J. E.(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Kim, Yong-ju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san University
(E-mail: social-kim@masan.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 career guidance of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with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employment among the second, third, and first year students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from University M and University C in C city.

A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found that mater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evaluative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t is,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mater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evaluative support for each sub-factor of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for each sub-factor of social support affec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r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highe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urth,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emo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or each sub-factor of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parameter in the first stage, which met the mediating condition, and in the results of the second-stage parameter analysis, emo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or each sub-factor of social support, an independent variable,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ich met the mediating condition. In the results of the third-stage parameter analysis,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emo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or each sub-factor of social support, an independent variable, were significant and decreased compared to stage 2, and the paramete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showing tha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or each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ocial support system during employment counseling to support career preparation, and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udents with helps through program development that can increas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hen developing career programs.

Keywords :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